

# 김장수 前국방 한 비례대표 남성 1번

## 호남인사 영입 확대 기대... 일각선 “호남 뭉 경쟁 부추기나” 우려도

참여정부 마지막 국방장관을 지낸 김장수(광주 출신·사진) 전 장관이 16일 한나라당에 영입돼 4·9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당은 그동안 김장수 전 국방장관의 영입을 위해 삼고초려의 노력을 했다”면서 “김 전 장관의 입당으로 향후 국방 분야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은 ‘국방을 잘 아는 최고 전문가’가 한나라당에 입당해 그동안 참여정부에서 진행됐던 국방개혁들을 제대로 알아야 현 정부가 국방 문제를 원활하게 풀 수 있다”는 권유에 따라 입당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그동안 ‘한나라당 영입설’ 등 자신의 거취 문제가 제기되자 “군 조직과 선·후배에게 결례가 된다”며 극구 고사해 왔으나, 최근 강재섭 대표 등이 직접 나서 ‘삼고초려’ 끝에 비례대표 후



보로 영입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여성과 남성이 번갈아 배치되는 한나라당 비례대표에서 남성 비례대표 1번을 배정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강 대표를 만나 “군 복지 등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여겨 입당했다”면서 “안보와 국방에 대한 생각을 여당 입장에서 정부에 확실히 얘기하고 정책발표를 통해 튼튼한 안보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허리를 굽히지 않고 한 손만 내밀어 악수해 ‘뽕뽕 장수’라는 애칭을 얻은 바 있다.

이외에 전남대 의대 출신의 양우진(여) 대한영삼

의학과개원의협의회 회장도 대한의사협회 추천으로 한나라당에 영입돼 비례대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며, 한국세무사회장 출신의 임항순 전국 호남향우회총연합회 총재도 비례대표 앞순위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같은 호남 출신 한나라당 영입과 관련, 지역정가에서는 한나라당으로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정치인들의 뭉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영입인사에 대한 뭉은 전문가 영역의 뭉으로 하고 호남 뭉은 별도로 배려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진정 ‘호남 뭉 비례대표 30% 공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입 인사의 경우 전문가나 여성 뭉으로 돌리고, 호남 정서를 잘 알고 당에서 오랫동안 고생을 해온 호남지역 정치인들에게 호남 뭉을 별도로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정부 첫 국정워크숍에 앞서 장·차관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李대통령 “정치적 안정 매우 필요”

### ■ 새정부 국정철학 공유 장·차관 워크숍

## “경제 상황 오일쇼크 이후 최대 위기”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6일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정부 첫 국정철학 공유 확산을 위한 장·차관 워크숍은 경제위기에 대한 냉정한 진단과 함께 현실적 해법을 구하는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제 1, 2차 오일쇼크 이후 최대의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위기극복을 위해 가장 먼저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과거 현대건설 CEO(최고경영자)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기업·근로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기 진작 필요성과 함께 공직자들의 솔선수범 및 창의적 변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상당부분을 ‘경제’ 얘기로 채웠다. 이 대통령은 번

거 “지금 현재 부는 위기는 아마 오일쇼크 이후 최대인 것 같다”며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사실 지나간 10년은 국제환경이 좋았던 시절”이라면서 “새 정부가 시작된 지금은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원자재값과 환율도 오르는 등 여건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 “새 정부가 유류값을 10% 내렸지만 10~20% 올라갈 때 10% 내리는 것은 별나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이 대통령은 국민적 단결을 최우선으로 제시했다. “과거 경제위기 때마다 기업이나 노동자, 공직자, 국민 모두가 하나가

돼 같은 방향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전진이 가능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근로자들이 힘을 모아주면 기업의 생산성이 10~20% 올라간다. 그러면 원자재값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상쇄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후를 되돌아보며 “한 6개월쯤 지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한 지 오늘이 딱 20일이 되는 날인데 국민도 언론도 한 6개월은 된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언론은 한 1년쯤 된 정권으로 알고 우리에게 아주 많은 충고를 해 주고 있다”면서 “아마 우리에게 많은 기대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닌 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치적 불안 속에서 세계가 좋은 환경 덕분에 (우리 경제가) 그 정도 유지해왔다”며 전날에 이어 참여정부에 대해 비판하고 정치적 안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연합뉴스

## 최시중 오늘 인사 청문회

### ‘중립성’ 싸고 여·야 격돌 예상

국회 방송통신특위는 17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한다.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대통령 최측근에 대한 ‘코드 인사’ 문제를 비롯, 개인 자질과 전문성 등을 고리로 ‘부적격’ 인사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과장 공세에 나설 태세이며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여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최 내정자가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을 들어 방송의 중립성 훼손문제를 집중 거론할 예정이다.

또한 팜부기와 위장전입 의혹, 아들의 병역 면제 등을 들어 최 내정자를 ‘비리 3관왕’으로 몰아붙여 가면서 도덕성과 개인 자질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쫓고 넘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최재성 원내 대변인은 16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문성 없고 흠결 많은 인물에 대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사정 라인 영남 출신 독점에 이어 ‘이명박 민간독재’를 실현시키기 위한 명백한 방송장악 음모”라고 강도높게 비판한 뒤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책적 질의에 집중하면서 민주당의 정치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 “정권 바뀌어도 조직기동 잘 안돼”

### 李 대통령 행안부 업무보고서 지적 “공직자 비리 처벌 너무 낮아”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정권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여러 분야에서 원만한 협조와 원활한 조직기동이 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10년만에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부족한 사정이 있다고 하지만 나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현 시점까지 생각할 때 새 정권은 지난달 25일 시작됐지만 아직도 야당과 같은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듣기에 따라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임기직 정부부처 산하 기관장들의 ‘자진사퇴 거부’ 등에 대해 우회적인 비판 의견을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또 “(취임식 날인) 지난달 25일 저녁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았다. 다시 작동하는 데에도 열흘이 걸렸고, 열흘이 지나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청와대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아쉬움도 표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전후의 정부조직 개편 협상 난항과 내각 인선 파문 등을 염두에 둔

듯 “취임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정상업무에 들어가기 위해 예비장관들도 워크숍을 하고, 교육도 하고, 준비도 하고 출발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 한달동안 준비해 왔다”면서 “모든 내각이 현장을 확인하면서 빠른 시간내에 새 정부의 선진 일류 국가를 향해 열심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질책하며 변화를 거듭 주문했다. 특히 공직비리에 대한 새 정부의 엄단 의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연결하는 과정에 있어 과거에는 원활한 협조보다는 수직적 관계나 매우 전통적, 관료적 방식으로 일을 해왔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행안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선진일류국가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결국 부패지수를 낮추자는 것”이라면서 “공직자 비리에 대한 처벌 규정이 너무 낮다. 사정에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시스템을 갖추는 것과 더불어 처벌 기준을 강화해 비리를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민주 “李대통령 선거개입 발언 중단하라”

통합민주당은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장·차관 워크숍에서 “정치적 안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발언한 데 대해 “선거개입 발언을 즉각 중단하라”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산동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발언이 연이어

나오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선진국에 가기 위해 정치안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지 않았고, 다 아는 얘기를 이 시점에서 한 것은 총선을 앞둔 선거개입 발언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며 “이 대통령이 선거 삼매경에 빠져있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이 지난 14일 춘천지역 행사에서 “이번 내각은 ‘강원도 내각’”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한승수 총리와 이상의 김하중 장관이 모두 강원도 출신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3김시대 때 총선에서 하던 발언의 복사판”이라며 “어떻게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냐. 영남 가서는 ‘영남 내각’, 충청 가서는 ‘충청내각’이라고 하는 싸구려 발언을 대통령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법원 집행부중신의 매각 공고

<p>1. 매각 대상: 서울지방법원 제1부 제1회 파산관재인인 (주)한국건설산업개발(이하 '한국건설')의 자산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번지 1층 건물 (이하 '매각 대상 부동산')</p> <p>2. 매각 방법: 경매</p> <p>3. 매각 일자: 2008년 3월 20일</p> <p>4. 매각 장소: 서울지방법원 제1부 제1회 파산관재인 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번지)</p> <p>5. 문의처: 서울지방법원 제1부 제1회 파산관재인 (전화: 02-1234-5678)</p>	<p>1. 매각 대상: 서울지방법원 제1부 제1회 파산관재인인 (주)한국건설산업개발(이하 '한국건설')의 자산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번지 2층 건물 (이하 '매각 대상 부동산')</p> <p>2. 매각 방법: 경매</p> <p>3. 매각 일자: 2008년 3월 20일</p> <p>4. 매각 장소: 서울지방법원 제1부 제1회 파산관재인 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번지)</p> <p>5. 문의처: 서울지방법원 제1부 제1회 파산관재인 (전화: 02-1234-5678)</p>	<p>1. 매각 대상: 서울지방법원 제1부 제1회 파산관재인인 (주)한국건설산업개발(이하 '한국건설')의 자산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번지 3층 건물 (이하 '매각 대상 부동산')</p> <p>2. 매각 방법: 경매</p> <p>3. 매각 일자: 2008년 3월 20일</p> <p>4. 매각 장소: 서울지방법원 제1부 제1회 파산관재인 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번지)</p> <p>5. 문의처: 서울지방법원 제1부 제1회 파산관재인 (전화: 02-1234-5678)</p>
--	--	--

광주시립병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